

◎ 2003년 교회표어 ◎
언제나 무지개를
바라보라
(창 9:13)

함즐함울

[준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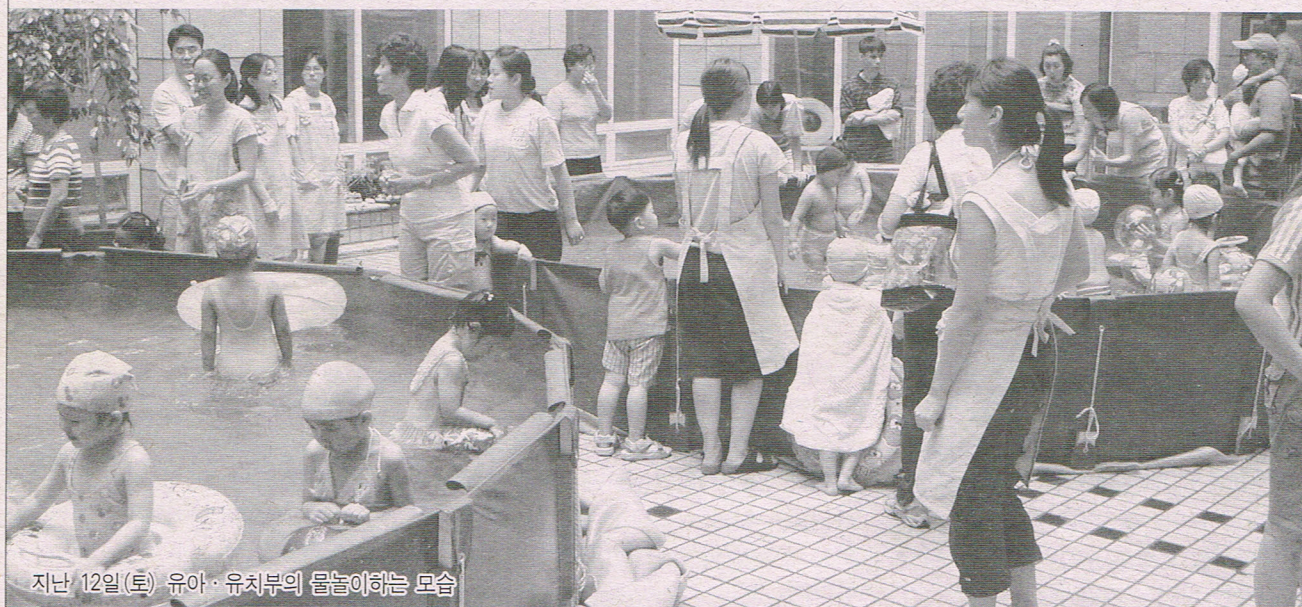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49 호 / 발행일 : 2003년 7월 20일

교회·학교 여름수련회



지난 12일(토) 유아·유치부의 물놀이하는 모습

2003 임직자선거

1,000명의 성도가 선거에 참여 5시반까지 개표 진행



본인 확인



기표



투표



개표

지난 주일 오전 8시 30분에 1부예배 후 담임목사의 공동의회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임직자선거는 오후 1시 40분까지 진행되었다. 본관 1층 로비와 복도를 이용하여 설치된 투표소에 선거관리위원들이 미리 자리를 하고 준비하고서 성도들을 맞았다.

자신들의 이름을 확인하고, 당회에서 공천한 장로후보 공천자 20명, 안수집사후보 공천자 36명, 권사후보 공천자 39명의 사진과 교회봉사경력이 기록된 기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장로 10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20명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투표함은 투표소 중앙과 기표소가 설치된 복도 끝 좌우편에 3개씩 총 9개가 설치되었다. 선거

관리위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있게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이번 선거에는 1,000명 이상의 성도가 참여하였고, 20명 이상의 선거관리위원들이 수고하였다.

선거가 끝난 오후 2시부터는 4층 대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개표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표가 이루어졌다. 설렘없는 손놀림과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된 개표는 오후 5시 30분에 가서야 마칠 수 있었다.

7월 20일에 진행될 2차투표도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와 개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2차투표를 마지막으로 2003 임직자선거는 마감하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차투표 후 최종 선거결과를 함즐함울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영아부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즐겁고 뜻있는 수련회

0세에서 24개월의 아기들이 함께하는 영아부에서는 7월 13일(주일)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가졌다. 20여명의 교사들이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각자 맡은 프로그램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후 기대감과 떨림으로 아이들을 기다리자 이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토닥토닥 영아부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나는 찬양과 율동과 예배로 수련회는 시작되었다. 비록 말은 하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지만 오물오물 입을 움직이며 온몸으로 율동을 따라하며 신나는 모습, 이영란 전도사의 이야기 설교에 사뭇 진지한 눈빛, 놀이학습에서 왕관을 만들어 쓰고 공주와 왕자가 된듯 뽐내는 모습, 두 눈을 꼭 감고 고사리같은 두 손모아 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모습은 어른들의 희망의 무지개이며 이 땅의 어떤 더러움도 다 씻어 정화할 수 있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주일예배를 드리고 오신 부모와 함께 하는 놀이학습으로 흰티셔츠에 그림을 찍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코너가 이어졌다. 아기들의 손과 발을 찍는 등 어찌나 정성을 들여 꾸미는지 엄마들의 아이들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순간이었다.

부모와 함께한 점심시간도 잠시, 1층 소예배실에서 이어진 부모교육 특강에서는 영아, 유아, 유치부 합동으로 수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허영림 교수의 '당신은 끄는 부모인가? 미는 부모

2003 임직자선거 1차투표 결과

지난 주일 임직자 선출을 위한 1차투표를 실시했다. 총 1,076명이 투표했고 그 결과 장로 후보자는 피택자가 없어 최고득표자인 김경빈 집사(653표)로부터 득표순으로 10명이 2차투표 후보자로 추천되고, 안수집사 후보는 최종명, 송국환, 이단열, 신정웅, 최종만 집사가 피택되었고, 서치영 집사(537표)부터 30명이 2차투표 후보자로 추천된다. 권사 후보는 이승숙, 유은숙 집사가 피택되었고, 고선옥 집사(514표)부터 36명이 2차투표 후보자로 추천된다.

2차투표는 장로 10인, 안수집사 15인, 권사 18인을 선출하게 된다.

- 2차투표 후보자 -

- 장로 후보자 : 김경빈 김성배
엄주청 최상용 이영자A 류달현
이지화 김재현 김완중 박호길
(10명)
- 안수집사 후보자 : 서치영 김익수
강진식 김용일 문완홍 이종복
박동수B 임창남 김홍용 지유철
김기성 서준규 김구중 박종규
조영를 이상운A 정성기 이효운
이원철 심동욱 이용수 김동근A
박대길 동현수 나영일 이진원
성하홍 임익수 이동희A 김병한
(30명)
- 권사 후보자 : 고선옥 고정순
강경원 김명애 최영순B 한영미
이용분 김선례 이종은 김금숙
은영희 방혜준 김순희 박영남
이경자B 고유자 이혜란A 김복희A
손혜선 최재경A 박서연A 박귀희
신영숙 김설희 최진옥 최정운A
최귀선 김경미A 이희순A 유마노
김현주A 백설희 윤 숙 권성희
이미화A 유귀향(36명)

- 선거관리위원회 -

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이 이어졌다. 태어나서 최초 환경인 가정에서 귀한 자녀를 어떻게 올바르게 키워갈 것인가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재미있는 어투로 강의를 해주었다. 강의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귀한 강의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고마워하였고 영아부에서 놓고 있던 아이들을 만나 귀가하면서 아쉬움이 있지만 즐겁고 신나며 뜻있는 수련회였다고 만족해 하였다. / 김향순 기자

수요간증

‘주님의 노란 손수전’

2002년 10월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늦은 밤이었다. 가게가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차로 밤길을 500km를 달려와 숙소에서 피곤한 몸을 쉬려는 참이었다. 어느 때처럼 유일한 친구인 컴퓨터를 키고 인터넷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을 들으며 잠을 청하는데 마침 그 때 이 노래가 나오고 있었다. 생전 처음 듣는 노래인데도 온몸이 마비되어서 한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눈물이 막 흘러서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겨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 하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젠 아버지의 집으로 이젠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었드리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 노래는 바로 나의 고백이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축하노래였다. 48년

째 나의 생일을 맞이하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생일날 주님은 내게 노크하셨다. 한 때 나는 잘 나가던 청년 실업가였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1년 6개월간의 구치소 생활을 하였다. 그 뒤 1998년 초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분연히 다시 재기하여 예전의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를 과시하고 싶었다.

지난 4년 동안 모든 것을 걸고 옷장사, 간판장이, 목수 때로는 전기기사일까지 하며 열심히 동분서주 일했다. 하지만 나아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지나온 고생이 억울해서 한없이 울음이 나왔다. 주님께 서원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다. ‘저를 세워주시면 저 소돔과 같은 도시 라스베가스 입구에 멋진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타락하러 가는 많은 사람들을 돌려 세우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봐, 하지만 안돼!’라고 말씀하시는 냉정한 주님이셨다.

그런가 하면 이재철 목사의 ‘네가 지

금 어디에 있느냐?’는 그 분 저서를 통해 꾸중하셨다. 노래 속에 주님께서 가만히 달래시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용남아! 이젠 그만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니?’ 나는 그제야 주님의 말씀에 항복했다. ‘주님, 제가 졌습니다. 아니 철저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배반하고 불구자로 만든 한국이지만 가서 죽더라도 돌아가서 죽겠습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후 미국에서의 모든 꿈과 일을 버리고 2003년 1월 7일 한국에 도착했다. 내 삶에 있어 첫 번째 버팀목은 끈질기게 나를 주관하신 주님이셨고, 두 번째 버팀목은 요즘의 이혼 사유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된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빈손으로 돌아온 날 받아준 아내 박찬순 집사이다. 아내가 오히려 나에게 고맙다고 한다. 내가 그렇게 결길로 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만드신다. 이렇게 여러 교우들 앞에 고백하는 이유 중 하나는 행여 앞으로 다시 교만해지려 할 때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나를 붙잡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 김용남 성도(7·11구역)

성지순례시리즈 8

신앙의 지하도시 ‘데린쿠유’



1963년 갑바도기아의 한 농촌 마을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 농부가 살고 있던 집의 방바닥이 움푹 꺼지면서 엄청난 규모의 지하도시가 드러난 것이다. 신앙의 지하도시, 데린쿠유의 발견이었다.

‘깊은 우물’이라는 뜻을 지닌 지하도시 데린쿠유는 초대 기독교 시절에 극심한 박해를 피해 숨었던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건설되기 시작했다. 이 지하도시에서 성화가 일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 그것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곳에 피난민이 점점 증가했고,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연, 이 지하도시는 더 밑으로 더 옆으로 자꾸 팽창되었고, 내려갈수록 더 복잡한 미로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 아랍인들이 침입한 7세기경에는 더욱 그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 중인 이 곳은 현재 지하 20층 규모인 120m까지 발굴이 이루어졌으며, 일반인들은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지하 8층인

55m 정도만 관람할 수 있다.

터키 고고학자와 현지 목사님의 이 어지는 설명을 들으면서 일행과 함께 지하도시를 내려갔다. 지하도시는 생각보다 정교했다. 위에는 주로 곡식을 저장하고 포도주를 만들며 보관하던 장소들이 있었고, 내려가면서 주거용 방, 부엌 등이 보였다. 더 내려가니 성찬 및 세례 장소와 더불어 신학교 유적까지 있었다. 매 층마다 있는 공기정화장치와 지하 200~300m에 있는 우물이 신기했다. 긴급한 경우에 타 지하도시로 피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9km의 지하터널은 일반인들에게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내내 아쉽기만 했다.

오고 가며 백열등 희미한 불빛 아래 중간 중간에 보이는 비상 계단과 위급할 때 굴러서 입구들을 가로막았던 원형석이 눈길을 끈다. 이 곳이 결코 삶의 유희나 생활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키려한 신앙터임을 간증하고 있는 듯하다.

내려간 마지막 장소는 죽은 자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누인 곳과 시신을 마지막으로 내보내던 조그만 통로를 바라보았다. 밝고 넓은 지상을 마다하고 좁고 캄캄한 공간에서 살다 죽어간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이란 도대체 어떤 소망이었을까.

올라오는 길에 마무리 설명을 들었다. 이 근방에서 데린쿠유와 같은 도시가 36개 정도나 발굴되었으며, 한 때 약 2만 명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거주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 의문이 들었다. 왜 이 곳은 지하도시로 그 유적만 남고, 그들은 모두 사

라져버렸을까. 신앙이 유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현재를 살면서 동시에 영원에서 사는 길은 무엇일까.

지하도시를 나오니 겨울 석양이 다져간다. 안타까운 눈망울을 한 어린 소녀들이 1달러를 부르며 조그만 인형을 팔고 있다. 차가운 손에 돈을 쥐어주며 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녀들에게 아버지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세요. 데린쿠유의 신앙을 간직하도록 도와주세요...’ / 하화주 집사(4·4구역)

호스피스 월례회 및 친교모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지난 7월 8일, 봉사현장에서의 수고를 잠시 접고 녹음이 우거진 남한산성에서 호스피스 회원 2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진호 집사의 기도와 아름다운 시낭독, 그리고 주님께 향한 감사의 찬양으로 한 마음이 되었다.

그간의 봉사현장에서의 근황을 살펴보니 올해들어 하늘나라에 가신 몇 분의 모습이 떠오른다. 복수가 차서 눕지도 못하고 앉아 있기도 힘들어 하던 자궁암 환자, 시력마저 잃게 되어 쪽방에서 혼자 사셨던 할아버지 등 너무나 아파서 고통스러워 하던 환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적신다.

김순향 권사는 노숙자들과의 고통을 나누면서 느꼈던 마음을 회원들에게 권면의말로 해주었다. “봉사자의 입장이 아닌 환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환자가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선교부에서는 복지선교부 자료집에 실린 아래의 글로서 활동비전을 소개한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바위에 길을 내듯이

네 잎 클로버하면 행운이란 단어를 떠올립니다. 사실은 네 잎 클로버는 비정상일뿐 아니라 세 잎 클로버 세계에서는 왕따일지도 모릅니다. 치명적이고 가장 큰 약점을 우리는 행운으로 해석합니다. 세 잎 클로버는 행복, 네 잎 클로버는 행운, 삶의 어려움으로 한 잎이 떨어진 두 잎 클로버는 용기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복지선교부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주님의교회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 세상에 너무 너무 많네요.

지금 이 시간에도 7명 중 한 명의 어린이가 췌장암과 이와 관련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12명 중 한 명의 어린이는 채 5살도 되기 전에 간단한 질병으로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에 길을 내듯이 주님의교회 교우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나타냅니다. 복지선교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봉사입니다. 외로운 이들에게는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특히 새롭게 참석하신 김정선 집사를 비롯하여 두 분의 남성 부원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부인 황윤애 집사와 함께 호스피스 교육을 수료한 박영달 집사, 작년부터 늘 청일점으로 모임에 적극적이었으며 마침내 이화여대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수료한 박순향 집사가 바로 그들이다. 그리고 이날 모임은 참석하진 못하였지만 국립의료원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윤영범 집사 또한 훌륭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가 생각된다.

호스피스 봉사는 그 누구도 쉽게 실천하기 어려운 병상에서의 봉사로서 정신적, 육체적 돌봄과 영혼구원의 사역이기에 늘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어 이번 모임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기도 후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으며, 끝으로 감사의 기도라는 시로 마음을 가다듬고 이어서 성곽을 따라 수어장대까지 등산하면서 부족했던 운동도 하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정담을 나누었다. 이날 모임은 후반기 봉사활동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은혜로운 모임이었다. / 이승숙 집사

차량부의 '주일나기'

주일 아침은 평일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나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드리며 주일을 맞이한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감에 젖어 운전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의교회에 도착한다.

오전 6시 30분 교회에 도착, 차량부를 이끄는 부장 김한중 집사, 운동장 주차를 맡은 조영률 집사와 지난 주간의 안부를 묻고 덕담을 나눈 후 차량봉사 계획을 세우고 1부예배에 오시는 성도를 맞이한다.

7시 30분까지는 1부예배에 오신 성도를, 7시 50분부터는 2부 찬양대 성도를 맞이한다. 특히 2부 찬양대의 일

부 성도들은 교회 안의 주차공간을 고려하여 미리 차를 교회 밖에 주차하고 들어온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의 말을 전한다.

1부예배가 끝난 후 30여명의 차량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사를 나누고 기도를 드린 후 2,3부 봉사를 시작한다. 헌신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의 기초이며 헌신 없이는 어떤 봉사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차량봉사를 시작한지도 벌써 4년째 접어들었다. 특히, 겨울 눈오는 날이나 봄, 여름 비오는 날이면 운동장에 주차할 수 없기에 봉사부원에게는 가장 힘든 날이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게 지혜를 주셔서 적절하게 주차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눈이나 비오는 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이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바쁘게 주차 안내하다 보면 성도들을 기쁘게 해 드리지 못하고 사람보다는 차에 더 신경을 쓰다가 성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앞으로 성도들께서도 주차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차량봉사를 통해 차량부원 모두에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봉사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음을 깨우쳐 주셨다.

/ 이상윤A 집사(3-3구역)

교회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씀시다

'대예배'는 '주일예배'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속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드리는데 있어서 큰 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응답의 행위가 예배일진대 거기에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언제부터인지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를 지칭하여 대예배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많은 교회들이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 때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나온 말인 것 같다. 그러나 분명히 대예배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논리적으로 대예배가 있다면 소예배도 있다는 말인데,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소예배일 수가 없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한에 있어서 다만 예배일뿐이다.

물론 시간별로 예배를 구분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주일예배라든지, 주일 저녁(오후) 찬양예배라든지, 혹은 시간에 따라 1부예배, 2부예배라고 부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대예배'라는 용어는 합당한 말이 아니다.

(기독교용어연구회 제공자료)

중예배실에서 열린 봉송아학당

무지개공동체를 이루자는 6교구의 코믹한 연기에 성도들 박장대소

구역예배에서 처음 수요일표회 이야기 나오기 시작할 때는 한 달 전으로 교구 식구들은 개그콘서트의 봉송아학당을 모체로 빌려와 무지개공동체로 꾸며본다는 것만 알게 되었다. 책임을 맡은 신영숙 집사는 연습하기 전까지 진행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6교구 식구들은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저 무척 희극적이라 추측할 뿐.

몇 번의 수정을 거쳐 대본이 완성되고 총감독의 지휘아래 준비에 들어갔다.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연습하는 모습은 어릴 적 학예회를 준비하며 코흘리개의 순수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듯했다.

준비하면서 적극 동참해주는 정희성 목사의 모습과 연습시간에 참여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었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졌다. 연극팀과는 별도로 여성 성도들은 어린이들의 노래에 맞추어 워십댄스를 하기로 하여 각 구역별로 연습을 하면서 하나의 몸짓으로 맞춰 가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드디어 총연습을 모두 마치고 당일 우스꽝스러운 분장과 의상을 차려 입은 6교구 식구들은 기도하면서 긴장된 마음을 추스리며 무대에 올라가게 되었다. 모두에게 감춰진 숨씨가 빛을 발하는 시간이었다. 경건한 마음의 습터가 되어주는 성전에서 모두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는 뿌듯함이 깨끗한 공기 속에서 숨쉬는 듯한 상쾌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예배가 끝나고 6교구는 서로에게 박수를 아끼지 않았고, 칭찬과 감사와 섬김이 바로 사랑의 열매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수고가 헛되지 않았는

지 중·고등부 연합예배 때 다시 재공연 요청을 받게 되었고, 자녀같은 어린 학생들 앞에서 다소 쑥스러웠지만 십대들 특유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교구발표회로 인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된 삶을 배울 수 있었다. 8월에 있을 교구수련회에서 다시 연극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 지금 다시 준비중이라 한다.

/ 정해춘 기자

주님의교회 청년들 디딤돌대안학교 교사로 섬기다

2000년 9월 개교한 디딤돌학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20명 내외의 청소년들이 삶의 체험을 통해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가는 배움터다. 일반적인 대안학교 기준으로 볼 때는 도시형 대안학교이다.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을 기준으로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천차만별이어서 전체학습보다는 개별 학습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학생들의 연령은 17~20세 정도이며, 학생들의 거주지는 대개 학교와 멀리 떨어진 경기도, 광주, 하남, 성남, 송파, 강동 등이다.

학생들의 하루 일과는 오전 9시 30분 등교하고 오후 5시에 정규수업이

마치는 것으로 한다. 현재는 2003년 2학기를 진행 중이며, 현재 8월 5일 검정고시를 앞두고 있다. 검정고시를 치른 후 9월부터 3학기가 시작된다. 8월 한 달간은 4기 신입생을 모집하여 3학기부터 학생들의 진로 찾기와 프로젝트 화시킨 수업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학생들은 부모에게 적절한 보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몸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 이들에게 교통비와 식대를 나눠줄 수 있는 수는 절반 정도뿐이다. 이렇듯 스스로 벌거나 후원을 받아야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형편이다. 수업료와 식대를 못내는 학생들 문제로 고민하던 교사들에게 국내선교위원회 후원은 은혜였다. 매월 보내주는 후원금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식대와 한 학기 5만원 수업료도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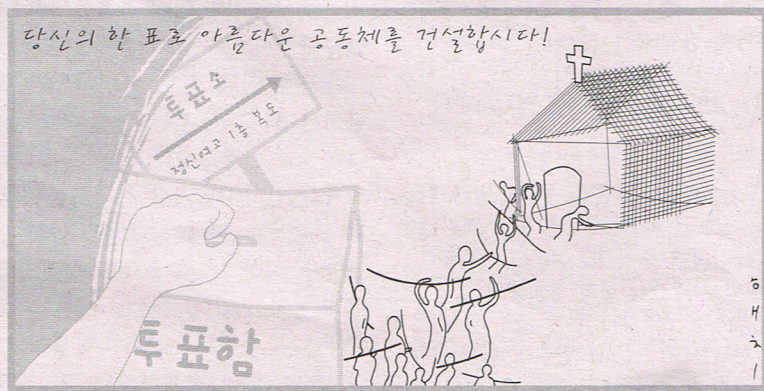
주님의교회 청년부에서 기쁨으로 자원봉사하는 교사(이정연, 박규상, 전미애, 이환정, 이동근, 정혜인, 양희정)들은 디딤돌학교와 학생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로 큰 힘이 되고 있다. 전미애 교사는 학생들과의 짧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전혀 흥미가 없는 학생들로부터 쉽고 재미있는 수업을 하여 격찬을 받고 있다.

그 학생들 중에 구자영 학생은 선생님과의 교감을 토대로 다른 학습능력도 훨씬 진보하였다. 이정연 교사는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사회과목을 가

르치는데 오랜 시간 다져진 강의능력과 주님이 주신 파스한 사랑이 느껴지는 수업을 진행 중이다. 검정고시 학생들의 합격을 위해 특강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쳐주어 학생들도 공부에 열중한다. 이환정 교사는 수학을 강의하는데 점심시간은 학생들과 농구 시합을 하며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청년 교사들 모두 진지함과 열정으로 대안학교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으며 서길원 안수집사의 물심양면의 숨은 봉사가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주 최창섭 장로는 꿈과 욕심의 차이, 인간이 갖추어야 할 인격,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주제 등으로 70분 강의를 해주었다. 자칫 지루해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삶의 다양한 경험을 들려주어서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 이동희 집사(4-3구역)



청년부 특강

기획
취재

7월 6일(주일) 오후 3시부터 청년부를 위한 네 가지의 선택특강이 열렸다. 예배 후 바로 흠어진 청년들은 각자 선택한 특강 강의실을 찾아 떠났다.

제1강

크리스천의 기본 도
복음과 구원의 확신
니고데모들이 깨닫는 시간

‘크리스천의 기본 도’ ‘복음과 구원의 확신’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확실한 개념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지난 7월 6일에 있었던 청년부 특강 중 1층 자모예배실에서 정현희 목사의 제1강은 이런 청년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정현희 목사는 말씀의 서두에서 ‘먼저 자신을 깊이 살펴보라’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한계성과 이로 인한 죄와 두려움, 죽음의 힘으로부터 자유케하는 ‘구원’이란 무엇인지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성경에 언급된 거듭남과 새로 태어남 역시 하루 아침에 있게 되는 어떤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길고 긴 마라톤과 같은 것임을 일깨워 주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복음과 구원, 그리고 거듭남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이번 특강은 지금까지 우리 청년부의 각 지체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만 관심을 둔 니고데모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특히 정현희 목사의 신학공부를 하게 된 계기와 그 도전정신 그리고 세 번의 회심했던 과정을 들으면서 한 시간 반의 짧은 특강은 아쉬움을 주었다. 1층 자모예배실에서 발이 저려오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강의실을 나오는 모습들 속에 은혜를 이어가려는 진지함이 가득 묻어났다. / 전수경 기자

제3강

크리스천의 건강한 자아상
황홀한 여행
‘참 소중한 나’를 찾아서

4층 교회학교 사무실에서 ‘건강한 자아’에 대한 윤덕영 목사의 제3강은

약 20명의 청년들이 참석하였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영적 자아’를 만나기 위해 내면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었다.

먼저 약 10분에 걸쳐 자신의 내면적 성향에 대한 진단표와 건강한 자아에 대한 점검표 등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작성한 것을 토대로 자신의 경험을 한 사람씩 이야기하며 지금 현재의 자기 모습에 만족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솔직하고 진지한 설명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건강한 자아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들은 뒤 건강한 자아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자아들이 분열된 채로 존재한다. 이것이 영적 자아를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그 영적인 자아가 바로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을 가지는 장소가 된다. 이것을 찾아 떠나는 여행 중에 우리는 자신의 내면들과 만나고 깨닫게 되면서 그것들에게 질서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영적 자아로 향하게 되는 길을 발견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자아를 이루는 길이다. 가장 귀한 보물은 자기 안에 숨겨져 있으며 이것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야말로 가장 큰 희열이 있는 ‘황홀한 여행’이라고 말씀하였다.

한 시간 반 정도의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내면으로의 여행’에 대한 충동을 건드리고 일깨우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프로이트가 남긴 한 마디가 가슴에 와 닿았다. 「너의 이드(Id)가 있는 곳에 너의 자아가 있게 하라. 무의식 속에 있는 자신의 어두운 내면, 욕망들을 그대로 두지 말고 하나하나 들춰내어 의식화시킬 때 혼돈이 아닌 질서가 잡히게 된다」 / 허진 기자

중등부 강남병원 봉사

병원예배 특송
병실전도 5년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은혜의 도구로 쓰여지길

강남병원에서는 주일이면 병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주님의교회 집사들이 예배 때 찬양으로 봉사하기 위해 모인다. 한 달에 한 번 주일 오후 1시가 되면 손천숙 권사, 김현주 집사 등 몇몇 집사들이 강남병원에서 기도로 준비한 찬양곡을 화음을 넣어가며 연습에 몰입한다.

음악에 있어 프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연습과정부터 이런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믿고 있다. 예배시작 전 15분 가량 은혜로운 찬양으로 환우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설교말씀 시작 전 특송으로 섬긴지 5년이 되어가고 있다.

때로는 중등부 교사와 학생들이 찬양드리는 일에 합류하기도 한다. 또한

제2남선교회 친교모임

예배자의 삶이
지속되기를

제2남선교회는 지난 7월 6일(주일) 오후 1시, 1층 제3집회실에서 월례회 및 친교 모임을 가졌다.

1부 예배는 문완홍 총무의 인도와 한득현 회장의 기도, 그리고 지도 목사인 김성관 목사는 ‘제3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롬 12:1~2)라는 제목으로 ‘인생에서 가장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소유한 장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예배자의 삶이 되자’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2부에는 김원중 변호사의 특강이 있었다. 요즘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 빚에 대한 부모의 법적 책임 한계와 호주제 폐지에 대한 전통적 가족제도 붕괴 우려에 대한 내용들로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다음 모임은 산상기도회로 9월 하순에 갖기로 결의하고 폐회하였다.

다른 교회를 섬기는 집사들도 참여하고 있다. 몇 달 전부터 시온찬양대원 정우권 집사, 김동근 집사, 윤은경 집사가 합류하여 지금은 더욱 큰 은혜를 나누고 있다.

강남병원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신앙을 회복하고 은혜를 받고 눈물로 감사하는 환우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들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며 그들을 통해 오히려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가득히 느낀다.

처음 강남병원 봉사는 영아부, 중등부, 서초구역에서 함께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중등부 주관으로 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은 환우들 간식포장과 예배장소 청소 및 정리, 각 병실 전도, 환우 안내 등을 기쁜 마음으로 친절하게 담당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들이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보람을 느낀다. 또한 이런 기쁨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 이종은 집사

교회 여름행사 안내

▶교회학교 수련회

교회학교	기 간	장 소
유년부	7월 27일~29일	안성 엄마목장
초등부	7월 24일~26일	양평 관광농원
소년부	7월 24일~26일	가평 용두암수련원
중등부	7월 27일~29일	강원도 산골아이 놀이학교
고등부	7월 29일~8월 1일	
청년1·2부	8월 10일~14일	강원도 좌운교회

※ 자세한 문의는 김현령 전도사 ☎ 416-5181)에게

▶교구 수련회

교 구	기 간	장 소
1교구	8월 17일~19일	수동정동제일교회수양관
2교구	7월 28일~30일	광림세미나하우스
4교구	7월 25일~26일	축령골타운
5교구	7월 25일~26일	광림세미나하우스
6교구	8월 15일~16일	이천 유스호스텔
7교구	8월 8일~9일	둔내 유스호스텔
8교구	7월 27일~28일	양평농원

※ 자세한 문의는 교구 권사, 교구 안수집사에게

▶5교구 여름수련회 안내

- 주제 :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눅 17:21)
- 기간 : 2003년 7월 25일(금)~26일(토) 1박 2일
- 장소 : 광림유스호스텔(광릉수목원 옆) 경기도 포천군 ☎ 031-544-0515~8
- 출발 : 7월 25일(금) 8시 30분까지 교회 1층 로비에 집합
- 5교구의 지역은 송파구(잠실동, 신천동, 풍납동), 광진구, 성동구 지역이다. 이 지역에 사시는 성도들은 수련회 참가를 윤덕영 목사(019-676-2415)에게 연락바란다.

▶8교구 여름수련회

8교구 여름수련회가 7월 27(주일) 오후 3시부터 7월 28일(월) 오전 10시까지 양평 한화콘도 근처에 있는 양평관광농원에서 열린다. 교구 식구들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교제의 시간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 하니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모든 교구 식구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8교구 식구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세한 내용은 각 구역을 통하여 통보한다.

• 문의 : 각 구역장과 권찰 또는 김병모 목사, 한득현 안수집사, 임기택 집사, 김진숙 집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전화 : 02-416-5181
홈페이지 : www.pcltv.org

◆ 기사제보안내 ◆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자에게, 합출함을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핸드폰 : 011-466-4736

▶이메일 : chhylee@korea.com